



제30회 충청북도 한우경진대회



정우택 도지사의 개회인사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농협지역본부 주관하는 '제30회 충청북도 한우경진대회'가 지난 10월13일 청주시 주중동 소재 밀레니엄타운 내 축구경기장(구, 엑스포장)에서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채희대 농협충북지역본부장,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충북도의회 의장과 의원, 충북도내 축산기관장과 농·축협장, 한우협회도지회장·시군

지부장 및 한우농가, 도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충북한우경진대회는 1996년 처음 대회가 개최된 이후 꾸준히 축산기술 정보교류 및 축산농가와 의 화합의 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다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소값하락과 '00년, '02년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0년만에 다시 부활된 것이다.

이날 열린 제30회 충북한우경진대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 다양한 축산정보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수한 충북의 축산물을 소개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서 새롭게 부활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정우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10년만에 부활된 한우경진대회를



개회식



큰암소부문 출품축들

축산농가와 더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이 자리는 충북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자리를 지켜준 한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하였다. 또한 "한우는 우리 농촌의 소중한 소득자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한우를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대회가 한우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더 나아가 고급육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이날 주요 행사는 한우품평회, 한우고급육품평회 입상축 사진전시회, 충북의 브랜드축산물 전시 홍보 및 시식행사, 축산기자재 전시, 전통소싸움대

회,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축산인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한마당이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으로 축산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주 행사인 한우품평회는 4개부문(큰암소, 육성암소, 암송아지, 수송아지)에 총 48두가 출품되어 체중, 체측과 함께 외모심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였다.

10년만에 부활된 한우품평회에는 많은 축산농가와 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심사가 끝난 뒤에는 이종헌 심사위원(한국종축개발협



심사위원들의 출품축 심사



이종헌 심사위원 현장교육



챔피언 기념패 증정(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심사의 필요성과 방법, 좋은 한우를 고르는 방법, 보는 방법, 혈통관리의 중요성, 한우의 우수성, 산업의 전망 등 한우개량과 심사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참석자들에게 한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번 한우품평회에서는 큰암소 부문에 출품한 청원군 현도면의 박종인씨(65)의 4년생 암소가 챔피언이 선정되어 충북 최고의 한우에 이름을 올렸다.

챔피언에 선정된 박종인씨 큰암소는 갈비개장 상태나 지제, 체상선 등 외형이 예쁘게 잘 발달되어 체적균형과 자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영

예의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었으며 200만원의 상금까지 받는 행운을 차지했다.

박씨는 수상소감에서 “새끼를 뎨지 한 달여 밖에 안되어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와 1등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챔피언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으로 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더욱 좋은 한우를 생산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날 챔피언에 오른 암소는 지난 2002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10년전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한우의 혈통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 걸린 대부분의 현수막에는 “한미FTA로부터 농업, 농촌을 지켜내자, 한우자조금 한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낸 한우자조금 한우산업 기반을 다잡니다”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 충북 도시민과 농축산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로 열렬히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들로 현재 협상 중인 한미FTA를 반대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다.



챔피언 수상축과 출품농가 박종인씨

《제30회 충북한우경진대회 행사이모저모》

Spot Focus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계류 및 심사





《제30회 충북한우경진대회 행사이모저모》

Spot Focus

주요 부대행사



